



—2022—

현명한 물소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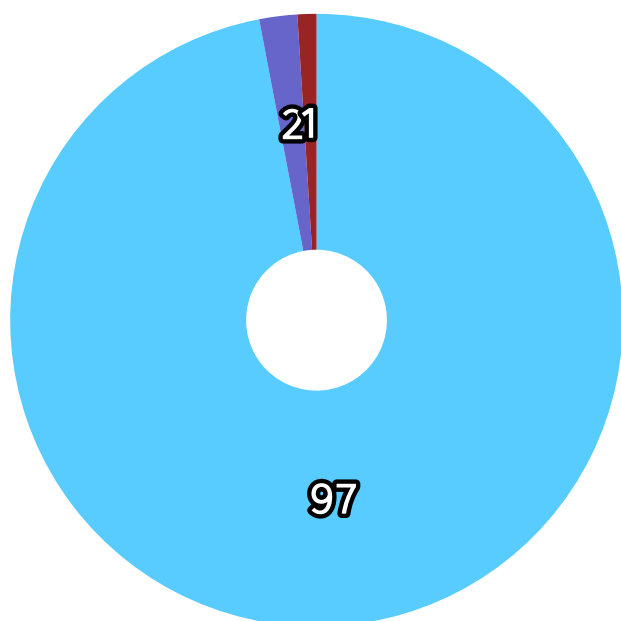
세계 물의 날
소중한 물을 지키기 위한
우리들의 약속



넘치는 게 물인데

왜 물이 부족할까요?

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은 1컵!



바닷물 빙하 민물

지구 상에 있는 물의 양을 모두 100컵이라고 한다면,
이 중에 **3컵 정도만 민물**이고 97컵은 바닷물입니다.
먹을 수 있는 3컵의 물 중에서도
2컵은 얼어 있는 빙하이고
실제로 **먹을 수 있는 물은 1컵 뿐**입니다.

게다가 1컵의 물도 고르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.



우리나라에서는 가뭄이 와도 수돗물이 쿵쿵 나와요

정말 물이 부족한 걸까요?

한국은 물 스트레스 국가!

OECD 국가 중,
한국은 쓸 수 있는 물 보다 써야 할 물이 더 많은 나라 1위로 전망 한다고 합니다.

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세계평균보다 많지만
비가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내리는 데다,
인구밀도가 높아서
한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적은편 입니다!



우리는 하루에 물을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?



유럽



한국

서울 시민 1인당 사용하는 물의 양은 293리터(2019)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
이는 독일(127리터)의 2배, 세계 평균(94리터)보다 3배
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.



커피 한 잔을 소비하는데

얼마나 물이 필요할까요?

아보카도 1개-320 리터

커피1잔-132 리터

햄버거 1개-2400 리터

흰 면 티셔츠1장- 2500리터

A4 1장-10 리터

소고기 1Kg-15,415리터



물발자국이란?

어떤 제품이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과 환경영향을 평가해서 만들었습니다.

숨겨진 물소비를 나타냅니다.

01

물 발자국을 지우는 착한 물소비

화장실에서는 이렇게 해요



✔ 물 절약 변기를 사용해요

절약형 변기를 사용하면 4인 가족이 하루에 147리터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.



✔ 물탱크에 물을 채운 병이나 벽돌 넣기!



✔ 변기는 용변을 버릴 때에만 사용해요.

변기는 한 번 내릴 때마다 13리터의 물을 사용해요.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, 또는 용변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물을 내리면 안돼요.

물 발자국을 지우는 착한 물소비

부엌에서는 이렇게 해요



☑ 기름이나 음식 찌꺼기는 휴지로 미리 닦아요.

설거지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 전체 양 중에 20%를 차지합니다.



☑ 설거지는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서 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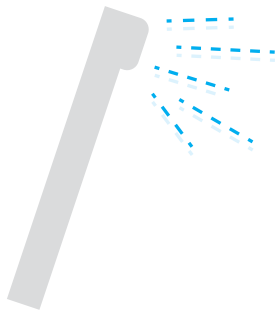
설거지통에 물을 받아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 한 번에 70리터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.



☑ 식재료를 세척할 때도 물을 받아서 해요.

물 발자국을 지우는 착한 물소비

씻을 때는 이렇게 해요



☑ 샤워기는 절수 샤워기로 바꾸어요.



☑ 샤워 시간을 정해놓고 씻어요.

샤워 시간을 줄이면 1분에 12리터씩 절약할 수 있어요.



☑ 양치물은 컵에 받아서 사용해요.

☑ 세숫물도 대야에 받아서 사용해요.

물 발자국을 지우는 착한 물소비

빨래할 때는 이렇게 해요



✔ 세탁은 세탁 바구니에 모아 한번에!



✔ 세제는 정량으로 사용해요.

추가 헹굼 기능은 최소 50리터에서 100리터까지의 물을 더 사용합니다.
세제를 정량으로 사용해서 추가 헹굼을 하지 않도록 해요.



✔ 세탁볼도 함께 사용해요.

세탁볼은 빨래의 엉킴도 방지하고 세제의 양도 줄여줍니다.